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지리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 일조량 동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만다라-탕카의 세계로 초대

티벳·몽골 밀교예술전

광주 전일빌딩 5층
11월 13일까지 전시

우주의 질서-깨달음의 실상 예술적 형상화 밀교의식 범구류·티벳민속의상 등도 볼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티벳. 생활과 종교가 분리 아닌 티벳사람들. 티벳불교의 만다라와 탕카(탱화)를 만나는 순간 감동에 앞서 성스러움에 웃음을 머미게 된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 5층에 티벳미술 문화의 진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티벳·몽골 밀교예술 특별전'이 마련돼 시민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성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이 10여년동안 티벳을 오가며 수집한 미술품들을 한데 모은 것.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티벳·몽골 만다라와 탕카 1백50여점, 불상 및 밀교의식에 쓰이는 각종 범구류 50여점, 민속의상 및 민속공예품 30여점, 불경 목판화 전적류 30여점, 인도 고대 불상 및 세발화 30여점 등 총 5백여점. 티벳 불교미술품들이 인류의 가장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이유를 관객들에게 알리기 전하고 있다.

전시회는 2월 14일까지 열 예정이었으나 반응이 좋아 11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성 백민미술관에서 티벳불교미술전을 연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전시에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조성된 '칼라차크리' 등 만다라와 탕카, 생세함으로 유명한 석가족의 장인들이 정성으로 제작한 '연등불'과 불인의 남성에너지와 여성 에너지가 완전한 조화를 이룬 깨달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남녀 부모불', 한지에 목화를 들이고 웃음을 한 다음 글·은·터키·산호석 등 네가지 보석으로 쓴 불경 등 티벳의 종교적인 신심과 열정이 찬란한 불교미술로 승화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대한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밀교에서 만다라와 탕카는 생명과 우주의 질서, 깨달음의 실상세계를 형상화 한 것으로 밀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다라는 크게 대일경전에 의해 여성에너지를 상징하는 태장계 만다라, 금강경전에 의해 남성 에너지를 상징하는 금강계 만다라로 분류한다.

태장계 만다라의 기본구조는 중앙에 중대 팔엽 원이 있고 중심원에 우주 법신생명의 인격화인 비로자나불이 연꽃받침위에 앉아 있다. 그 둘레에는 여덟 개의 꽃잎에 4배와 4배로 배치되어 있다. 4배는 우주를 구성하는 4대 원소, 흙·물·불·바람의 상징이다. 4배보살은 정신의 4대 원소인 수·상·행·식을 각각 나타낸다. 이

는 수행자가 물질과 정신의 구성원소가 본래 실체가 없는 공성(空性)임을 증명할 때 무아를 깨닫고 법신 생명과 한몸이 된다는 뜻이다.

금강계 만다라는 동·서·남·북의 4대 여래가 각각 4보살을 거느리고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중생의 다섯가지 번뇌가 정화되면 본래 스스로 존재하는 5가지 지혜 덕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한다.

만다라는 청·황·적·백·흑(흑)의 다섯가지 색채로 구성된다. 하얀색은 생명 우주의 중심 비로자나불을, 파란색은 자신의 불에 맞추려는 에너지, 노란색은 집착을, 빨간색은 애착을, 연두색은 활동적인 에너지를 각각 상징한다. 즉 만다라는 오묘하고 병든 마음이 깨끗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통로인 것이다.

티벳의 탕카는 종교적 의식에 사용했던 인도의 종교미술 파타(Pata)와 만다라에서 유래한다. 탕카에는 모든 종교적 의식이 그려져 있으며 수행과 통상을 위해 사용된다. 요즘 티벳의 탕화는 탕카, 탕살, 까르마 가드리의 세가지 양식이 있다. 이 탕화속에는 부처님, 보살들, 가르침에 호소하는 신장들, 스승들의 생애, 육도윤회, 계율과 의식이 관한 내용 등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액난을 막기 위해, 국력양성을 위해서도 탕화를 그린다.

티벳의 탕카는 아무리 복잡한 내용을 표현하더라도 세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이뤄진다. 상단의 좌우에는 해와 달이 빛나고 하단에는 연화대 위에 본존이 모셔져 있다.

이번 전시회에 전시된 티벳미술품들은 이같은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와 티벳인들의 혼이 내포돼 있다. 특히 만다라 명상은 반뇌와 고통 불안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초월스님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개인의 고통과 불안, 사회의 혼란은 자기 생명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이다. 삼과 죽음 이후의 세계, 생명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의 영성세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티벳불교미술을 통하여 모든 이웃들이 고통과 불인의 원인을 깨닫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큰 숨을 세 내어 육신과 성령과 어리석음의 나쁜 독을 다 내보낸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불 보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조성된 칼라차크리.

밀교예술전 기획 현장스님

"티벳의 지혜 배우는 기회로"

티벳·몽골 밀교예술특별전을 기획한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은 "이 행사가 단순한 미술품 전시회가 아닌 티벳의 생활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장스님은 87년 인도 라리의 '호크담사'에서 목련기도를 마친 달라이 라다를 친견한 것을 계기로 티벳불교를 만났다. 그 후 스님은 티벳불교에 매료돼 수행과 연구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10여년동안 5백여점의 티벳불교미술품을 수집해 온 스님은 "티벳 예술에서 볼 수 있는 티벳의 맑고 깊은 정신문화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싶어 전시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티벳은 가장 절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민족으로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보며, 현대인사회의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티벳불교 예찬론이다.

"티벳불교는 21세기를 위해 보존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종교적 힘을 잃고 물질주의화 된데 반해 티벳불교는 21세기에 인간을 구원하는 종교로 우뚝 서 있어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현장스님은 지난해 5월 티벳 라마 단심담 초청 공연, 티벳 불경 번역 등 티벳과 한국불교 교류사업에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문화재 가치가 높은 티벳의 예술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1백20평규모의 (가칭)티벳성보박물관을 대원사에 건립하는 한편 티벳과 몽골의 불교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티벳 몽골 불교문화연구소도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수천년 불교역사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티벳불교미술품들을 모으며 정도를 영원하고 있는 현장스님은 "밀교미술품 보기를 좋아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처에 이르는 성스러운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4세기세존과 19나반을 그린 탕카.



◁티벳·몽골 밀교예술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초월스님으로부터 미술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다.



◁약사여래의 정토를 그린 만다라.



땀흘리는 미륵불

티벳·몽골 밀교특별전에 전시되고 있는 미륵보살상이 2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역사가 흘러내리고 있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처음에는 안면부분에 슬기 어린 미소가 가득한 미륵보살상이었지만, 지금은 땀을 흘리는 미륵보살상이 전시되고 있다.



◁티벳불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있는 불자들.

명상음악-선체조 강좌 티벳불교 이해에 헌묵

전시관에는 티벳불교의 이해와 신행활동을 돕기 위한 강좌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명상음악 감상 및 선체조 건강강좌가 바로 그것.

전시장 한편에 30여명이 앉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에는 관람객들이 티벳에서 온 초월스님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손녀와 함께 보성에서 온 지혜심보살은 "스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전시

작품과 티벳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며 호응해 했다.

이밖에도 불자들의 참배를 위해 티벳식 소법당을 마련했으며, 티벳관련 비디오를 상영하는 등 각종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는 이번 전시회가 눈으로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학습을 통해 티벳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처방이다.

강좌를 듣고 싶어하는 불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한 대원사는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동안 명상음악·선체조 상설 강좌를 마련했다. 이 강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

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좌에는 티벳에서 온 초월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스님은 지난 98년 한국을 방문해 한국불교를 배웠고 지난해에는 한국불교와 티벳불교의 영적교류를 위해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여시아문)를 발간하기도 했다.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는 초월스님은 매주 화요일 '생활속의 실천불교'를 주제로 강의한다. 목요일에는 보성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의 '명상음악 감상 및 만트라 학습·선체조와 건강기공(황공)'을 실시한다. 회비는 일반 5만원, 학생 3만원이다. (062)222-1165